

오제 자연보호 활동의 역사

일찍이 오제의 풍경에 마음을 빼앗긴 사람들이 이를 지키고자 결의한 이래, 오제는 자연보호의 선구적인 존재가 되어 왔습니다.

에도 시대(1603~1868)에는 습지에 오는 동물이나 물고기를 잡으러 사냥꾼이나 어부가 종종 이 지역을 찾았습니다. 오제의 북쪽(현재의 후쿠시마현)과 남쪽(현재의 군마현)을 연결하는 교역로가 오제 지역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메이지 시대(1868~1912) 끝무렵에 처음으로 산장이 세워졌고 오제의 지형이 조사와 자연 연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1903년, 일본의 근대화에 꼭 필요한 발전소를 짓기 위해 오제에 수력 발전 댐과 터널 등을 건설하는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그러나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단결하여 이 계획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오제에서 자연보호의 상징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 국립공원의 습지를 지키는 나무 길입니다. 처음에는 습지에 통나무를 놓았을 뿐이어서 건너기가 어려웠습니다. 그 뒤 통나무를 쪼개 평평하게 만듦으로써 더 쉽게 습지를 걸어서 돌아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1950년대가 되면서 등산객이 늘어 자연에 끼치는 악영향이 심각해졌기 때문에 1952년에는 본격적으로 나무 길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나무 길은 대부분이 습지의 표면보다 높은 위치에 만들어져 있으며, 현재 65km 길이에 이르고 있습니다.

오제에서는 일찍이 도로 개발이 검토된 적이 있지만, 이 또한 환경운동가들이 저지했습니다. 방문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쓰레기가 넘치기 시작하자 오제에서는 방문객이 자기 쓰레기를 가지고 돌아가게 하는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이 ‘쓰레기 되가져가기 운동’이 성공하여 같은 문제에 대처하는 일본의 다른 지역에도 이 운동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극히 최근에 오제는 지역의 수질 유지와 태양광 발전 등 친환경 에너지 이용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책을 수립했습니다. 공원 직원과 자원봉사자의 대처를

통해, 그리고 방문객 여러분의 협력을 받으면서 오제는 앞으로도 공원의 자연을
계속 지켜나갈 것입니다.